

보도자료

2011년 10월 26일(수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문의 :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재철 과장(☎750-1710)
 국제협력담당관실 손창용 사무관 (☎750-1715)

방통위, 2011 중동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**- 국내 방송콘텐츠 중동 시장(터키, 이집트, UAE) 진출 지원 -**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한국 방송콘텐츠의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 28일 터키 이스탄불, 10월 31일 이집트 카이로, 11월 2일 UAE 두바이 등 중동 3개국에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한다.

이번 행사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한 중동지역에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첫 번째 쇼케이스로, 과거 중동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'대장금', '주몽' 등 한류 콘텐츠의 뒤를 이을 새로운 방송콘텐츠의 중동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.

이번 쇼케이스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KBS, KBS미디어, MBC, SBS 콘텐츠허브, KBS N, YTN, CU미디어 등 주요 방송사업자가 참여하여 최신 드라마, 다큐멘터리, 3D 콘텐츠와 같은 다양한 한국 방송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.

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'공주의 남자', '계백', '시티헌터' 등 인기 드라마에서부터 '최후의 툰드라', '화산섬 제주' 등 다큐멘터리, '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', '스타뉴스', '디지로그 다잡기' 등 예능 및 시사·교양 프로그램, '태아(자궁)' 등 3D콘텐츠까지 한국의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적극 홍보·판매하여 중동 지역에 한류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.

또한, 방송콘텐츠 상영회 및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, 터키의 시청률 1위 방송사 Kanal D, 2위 방송사 ATV, 이집트의 국영방송사 ERTU, UAE의 중동 최초 위성방송국 MBC 등 각 국가별 주요 방송사를 방문하여 방송분야 협력 및 중동 권역의 한국 방송콘텐츠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방통위 관계자는 “이번 쇼케이스를 통하여 중동지역에서 우리 방송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끝.